

광주 '무소속 연대'로 돌풍 일으킬까

새정치 경선 탈락 기초장 후보들 탈당...무소속 출마 준비

시장·구청장·광역의원 연대엔 파괴력...치열한 선거전 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작업 과정에서 공천 배제(컷오프)가 속출하면서 이들 탈락자를 포함, 애초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한 구청장과 광역의원 후보 간 무소속 연대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의 광주시장후보 전락공천 강행에 맞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시장·구청장·광역의원 무소속 후보들의 연대가 성사될 경우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선거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보도 자료를 내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공천심사에 깊숙이 개입해 줄 세우기와 자기 사람 심기식 구태공천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당 지도부는 전락공천으로 광주시민의 선택권을 원칙적으로 박탈했다"면서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특히 "무소속 시장후보와 함께 시민이 인정하는 무소속 연대를 통해 뒷받침 광주의 자존심을 시민과 함께 되찾겠다"며 각 시장과 이 의원 등과의 무소속 연대 의지를 보였다.

지난주 광주시장 공천관리위의 경선후보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신광조·이상일 서구청장 예비후보도 지난 6일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이상동 광주 북구 광역의원(제4선 거구) 예비후보도 당 공천 방침과 기준에 반발, 지난달 이미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또 김종식 서구청장은 중앙당 후보자격심사 과정에서 공천 배제되자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병내 남구 광역의원(제3 선거구) 예비후보도 광주시장 공천관리위의 심사가 "특정 계파 죽이기"라고 반발하며 공천후보 사퇴서를 제출한 뒤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다.

이처럼 유력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

따르면서 지역정치권에는 이들이 무소속 연대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맞대결을 시도할 것이라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장 무소속 후보, 나아가 광주 인근의 나주·화순 등의 무소속 후보들과 연대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여서 무소속 주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 간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광주시장 관계자는 "컷오프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는 선거 때마다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에는 광역단체장 전락 공천 강행에 대한 민심 항배에 따라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있을 수도 있어 당 입장에서 바짝 긴장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zkpark@kwangju.co.kr

담양군수 예비후보

경쟁자 매수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담양군수 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 측이 경쟁후보를 매수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7일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담양 군수에 출마한 A·B 후보 간 매수 의혹이 일고 있어 이를 조사하고 있다. A 후보 측이 당선 후보상을 약속하며 후보 단일화에서 B 후보 측의 양보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B 후보 측은 "A 후보가 비서실장, 직속 민원실장 자리를 양분하고 인사에서 50%의 지분을 주고 지금까지 들 어간 선거 비용도 당선 후 보전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A 후보의 측근과 B 후보 측근이 지난 3월 8일 만나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고, 당시 대화 내용을 녹음해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B 후보 측은 말했다.

A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방식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고 여론조사 기관이나 조사 문안을 공정하게 선정하지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만난 것"이라며 "(매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A 후보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을 리도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양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위법행위가 의심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jo@



밝은 '웃음'...쉽지 않은 '위안부 문제'

7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2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참가한 민성여고 학생들이 '바위처럼'에 맞춰 울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기초 단체장 잇단 예비후보 등록

조충훈 순천시장·박병중 고흥군수·강진원 강진군수 등

6·4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전남지역 기초단체장들의 출마 선언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7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조 시장은 "2년 전 보궐선거에서 보내준

순천시민의 과분한 사랑에 감사하고, 정 원바람회를 꼭 성공시키라는 시민의 명을 받고 취임식도 하지 않고 쉴 틈 없이 뛰어 왔다"고 밝혔다.

박병중 고흥군수도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박 군수는 "민선 4, 5기 고흥군이 추진

해오던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하여 군민들에게 보답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도 재선도전을 위해 최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선준비에 뛰어들어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섰다.

강 군수는 "군수로서 군민을 대해 겸허하고 겸손한 것이 최소한의 의무이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명분이다"고 말했다.

또 "남은 선거기간 동안 돈 안 드는 청렴한 선거로 군민 모두가 행정의 혜택을 누리는 군민행복시대를 여는 진정한 목민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고흥·강진=김은중·주각중·남철희 기자 ejkim@

■ 역대 광주시장 어땠나

경선이 본선 '싱거운 승부'

민선 5기 민주당 경선팬

姜 0.45% 차 李 따돌려

윤태 용섭

■ 역대 광주시장 당선자

민선 1기	정당	이름	득표(율)
1기	민주당	송언중	45만8174(89.8%)
2기	새정치 국민회의	고재유	26만1578(67.2%)
3기	새천년 민주당	박광태	18만5938(46.8%)
4기	민주당	박광태	23만9884(51.6%)
5기	민주당	강운태	29만7003(56.7%)

민선 6기 광주시장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역대 선거 중 가장 치열한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락공천한 윤정현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광주시장, 이용섭 국회의원의 3파전이 전개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 대결구도를 놓고 역대 광주시장 선거 중 가장 예측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역대 광주시장 선거를 되돌아보면 1995년 6월 27일 치러진 민선 1기 선거는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김대중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이 낙점한 송언중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당내 경쟁없이 민주자유당 김동환 후보와 맞붙어 당시 15개 시·도지사 중 가장 높은 89.9%의 득표율로 대승했다.

1998년 6월 4일 민선 2기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같은 해 4월 25일 열린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 경선을 통해 고재유 당시 전 광산구청장이 최종 후보가 됐다. 송언중 당시 광주시장과 강운태 전 내부부 장관, 김태홍 전 광주북구청장 등 4명이 1차 투표를 했으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결선까지 이어졌고, 고재유씨가 투표 참가 대의원 250명 중 139명의 지지를 얻어낸 것. 고재유 후보는 무소속 이승재씨와 붙어 26만1578표를 얻었다. 득표율은 67.2%로 전국 16개 시·도지사중 9위에 머물렀다.

2002년 6월 13일 민선 3기 광주시장 선거는 경선 파동이 당락을 갈랐다. 이정일 전 서구청장은 고재유 당시 광주시장과의 새천년 민주당 경선(5월 4일)에서 1851표를 얻어 1775표를 득표한 고 시장을 누르고 승리했다.

하지만 이후 이정일 후보가 불공정 경선 잡음 등에 시달리자, 새천년

민주당은 최고위원회(5월 29일)를 열어 광주 북갑 국회의원이던 박광태 국회의원추천위원장을 후보로 교체했다. 박광태 후보는 한나라당 이환의 등 5명과 경쟁해 18만5938명(46.8%)을 득표, 민선 5기 중 유일하게 50% 미만의 저조한 득표로 당선됐다.

2006년 5월 31일 열린 민선 4기 광주시장선거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한판 승부였다. 선거 초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바람을 타고 전국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치솟았고, 조영택 후보와 김재균 후보가 맞붙어 결국 조 후보가 전락 공천됐다. 하지만, 최종 승자는 민주당 박광태 후보였다. 박 후보는 조영택, 한영(한나라), 오병운(민노당) 등과 대결해 23만9884표(51.6%)로 재선에 성공했다.

2010년 6월 2일 열린 민선 5기 광주시장 선거에선 민주당내 경선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이 3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강운태, 이용섭 두 후보의 대결로 압축됐고,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에서 강운태 후보가 37.80%의 총 득표율로, 37.35%를 획득한 이용섭 후보를 0.45%의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극적으로 당선됐다. 정동채 후보는 24.85%를 얻어 3위에 머물렀다.

강 시장은 경선 돌풍을 앞세워 정용화(한나라), 장원섭(민노당), 윤난실(진보신당), 정찬용(국민참여당), 조홍규(평화민주당) 등을 물리치고, 29만7003(56.7%)표로 민선 5기 광주시장이 됐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선 시대가 해를 거듭할수록 선거전도 치열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광주시장 후보는 각자의 강점이 있어 누구의 당선도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중-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뢰받은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보유 부동산 매각 광고

- 광주 동구 대인동 308-1, 2층상가 (대지 101.8㎡, 건물 145.4㎡)
- 광주 북구 북동 56-2 플럼빌리지(원룸) 5건 (각 호당 26.64㎡)
- 광주 동구 충장로2가 18 갤러리존 지하1층 상가 13호, 31호 (건물 38.1㎡, 건물 196.4㎡)
- 광주 남구 봉선동 85-3전, 산 61-2 임야(17,203㎡)
- 전남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412, 412-2, 412-4 주유소, 휴게소, 모텔(대지 9,142㎡ 건물 774.9㎡)

상담 후 가격 결정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062-361-3515)로 문의바랍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